



소수 잔존치와 임플란트를 이용한 고정성 보철 수복 증례

이영아*, 이재훈, 이근우, 한동후 |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

전악에 걸쳐 다수 치아가 상실되어 수직고경의 상실 및 교합평면의 붕괴가 초래된 경우, 환자의 수직고경 및 교합 평면은 치과의사에 의해 재형성되어야 한다. 재형성된 수직고경과 교합 관계에 환자의 저작근육 및 신경계사 잘 적응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종 보철 전 적절한 임시 보철물의 제작이 필수적이며, 임시 보철물을 최종 보철물로 오차없이 옮기는 것 또한 중요하다.

본 증례에서는 고정성 임시수복물을 이용하여 bite을 채득함으로써, 재형성된 수직고경과 교합 관계를 효과적으로 최종보철물에 옮기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.

본 증례의 환자는 46세 남환으로 만성적 치주염과 오래 방치된 dental caries 로 인해, 다수 치아를 발거하게 된 경우로, 지대치로 사용가능하다고 판단된 상악 좌우측 측절치 및 하악 좌측

견치와 제1 대구치 그리고 다수의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고정성 보철 치료를 계획하였다.

먼저 removable type의 temporary denture 로 환자의 수직 고경 및 교합평면을 재형성 하였고, 임플란트의 loading 이 가능한 시기에 temporary cylinder를 연결하여 이를 그대로 fixed type 으로 변경하여 환자의 적응력 및 oral hygiene 등을 평가하였다.

최종 보철물은 환자가 적응하고 있는 fixed type의 provisional restoration을 이용하여 bite을 채득함으로써 removable protocol로 bite을 채득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, occlusal plane 및 anterior guidance 등을 환자가 적응하고 있는 상태로 재현될 수 있어 기능적으로나, 심미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.